

*away*에 대한 의미자질분석적 접근

권용현

(성공회대학교)

Kwon, Yong-hyun. 2004. Approach to *away* Based on Semantic Feature Analysi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2(1), 1-21.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spatial movement, temporal distance, gradual change, and continuous property, which the term *away* generally means, are linked, rather than they are semantically independent of each other. The four meanings are found to have the semantic distinctive features [+DEPARTURE, -DESTINATION] in common. The additional feature [+GRADUALNESS] is derived from the two distinctive features when a verb has the semantic feature [+LOSS], and another additional feature [+CONTINUATION] results from the interaction of the two distinctive features when the semantic features [MOVE, LOSS] of the relevant verb are neutral in their values. And in this case, a certain syntactic constraint is needed so that spatial movement and continuous property may be distinguished. Furthermore, the paper reveals that the two derived features [+GRADUALNESS] and [+CONTINUATION] are not intrinsically different. They are exactly the same except that the feature [+GRADUALNESS] appears only with the so-called loss verb. Another finding is that the natural combination of *away* and *at* in the *away-at* construction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semantic features of the two terms fit in with each other.

주제어(Key words): *away*, semantic feature, [+DEPARTURE], [-DESTINATION], [+MOVE], [-ARRIVAL]

1. 머리말

아래의 예문(1)은 *away*의 다양한 의미적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 (1) a. The office is two blocks away.
- b. My English exam is only a week away.
- c. All the snow is melting away.

d. I was still writing away when the exam finished.

예문(1)에 등장한 *away*는 각각 의미적 기능을 달리한다. 예문(1a)는 *away*가 사무실의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말해주는 공간적 상황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문(1b)의 *away*는 영어시험이 시간적으로 1주일 남아 있음을 표현하는 시간적 상황에 사용되고 있다. 예문(1c)의 *away*는 눈 녹음이 서서히 진행되는 장면을 묘사하며, 예문(1d)의 *away*는 답안작성을 끝내지 않고 계속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의미적 기능을 담당하는 일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처럼, *away*도 위에서처럼 다양한 의미적 기능을 한다. 문장(1a, b, c, d)에서 *away*가 담당하는 의미적 기능을 편의상 각각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이라 부르자.

이 연구는 *away*의 4가지 의미적 기능들이 어떠한 인지과정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away*의 기본의미를 설정할 것이며, 기본의미는 어떠한 의미자질들(semantic features)로 구성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또 나아가 *away*의 변별의미자질들이 파생자질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away*와 동사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할 때, 동사들의 의미자질과 *away*의 의미자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끝으로 *away-at* 구문에서 *away*와 전치사 *at*의 결합을 의미자질적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away*의 의미자질분석

2.1 기본의미와 유표성

앞에서 *away*의 의미적 기능을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 4가지로 분류했다.¹⁾ 이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 해당할까. 기본의미 설정을 위해 유표성(markedness) 이론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유표성이론은 일반성과 특수성의 대립으로, 언어현상 중에서 일반적인 것은 무표적(unmarked)이고, 특수한 것은 유표적이다.²⁾ 여기서 일반성과 특수성

1) 사전과 학자에 따라 *away*의 의미분류는 다양할 수 있다. 의미란 그 자체의 성격상 주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류를 제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로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1995)은 5가지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기동(2001)도 5가지로 나눈다: (1) 공간적 의미, (2) X와 Y의 관계, (3) 감소, (4) 비축 및 저장, (5) 계속 및 반복.

에 대한 기준은 Givon (1990: 947)의 것을 따르기로 한다. 그는 유표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3가지 항목을 제시한다. 구조의 복잡성(structural complexity), 사용빈도(frequency distribution), 인지의 복잡성(cognitive complexity)이 그것이다.

먼저 구조의 복잡성 측면을 살펴보자. 어휘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유표적이며 단순할수록 무표적이다. 하지만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 모두가 *away*라는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휘구조의 복잡성에는 차이가 없다.

사용빈도는 어떤가. 한 어휘에 대해 사용빈도를 정확히 조사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전을 이용하면 사용빈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 어휘항목이 복수의 의미를 가질 때 사전의 기록을 위해 순서를 정해야 한다. 등록순서는 사용빈도수가 높을수록 앞에 위치한다.³⁾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앞에 있어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사전들을 조사해보면, *away*에 대해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 순서를 대체로 따른다. 따라서 사용빈도의 측면에서 공간성이 가장 무표적이며, 계속성이 가장 유표적이다.

인지의 복잡성은 어휘습득의 순서로 가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지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습득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찍 습득되는 항목이 늦게 습득되는 항목보다 무표적임을 말해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공간성 개념이다. 이는 곧 많은 사람들이 *away*의 공간성을 가장 일찍 습득한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이것은 공간개념이 인지하기에 가장 단순하기 때문이다. 공간개념의 무표성은 *away*만이 아니라, 전치사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⁴⁾ 따라서 인지의 복잡성 기준에서도 공간성이 가장 무표적이라 말할 수 있다.

2) 예를 들면, 단수/복수의 경우에, 단수가 무표적이며 반면에 복수는 유표적이다. 시체의 경우, 현재시체가 무표적이며 반면에 과거시체는 유표적이다. 유표적 대립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표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복수라는 개념이 있기 위해서는 단수라는 개념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과거시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현재시체가 먼저 있어야 한다.

3) 한 어휘에 대한 여러 사전들의 등록순서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그 순서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 Quark *et al.* (1985: 673)는 이와 관련해 공간의미와 시간의미를 가장 기본의미로 보고 있다: "...a preposition expresses a relation between two entities, one being that represented by the prepositional complement. Of the various types of relational meaning, those of space and time are easiest to describe systematically..."

2.2 변별의미자질

*away*의 4가지 기능 가운데 공간성이 가장 무표적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away*의 공간성을 기본의미로 삼고자 한다. 여기서는 *away*의 기본의미인 공간성이 어떠한 의미자질로 구성되는지 알아보자. 예문(2)을 살펴보자.

- (2) a. He is in Seoul.
b. He is away in Seoul.

예문(2)는 *away*의 유무에 있어서 대립을 보인다. 예문(2a)는 ‘그가 서울에 있다’라는 뜻으로,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반면에 예문(2b)는 ‘그는 현재 서울에 나가 있다’라는 의미로 그의 현재 위치는 서울이지만 그 이전에는 다른 곳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한다. 예문(2)의 의미 차이는 물론 *away* 때문이다. 이것은 *away*가 공간적 상황에서 ‘다른 곳(somewhere else)’이라는 의미자질을 가짐을 보여준다. ‘다른 곳’이란 의미는 기준이 되는 장소가 먼저 존재하고, 그 기준장소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함을 말한다. 즉 기준위치로부터 이동됨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away*는 기준위치로부터 분리되는 속성을 갖는다.⁵⁾ 따라서 *away*는 의미자질 [+DEPARTURE]를 가진다.

*away*의 분리적 속성은 *away*의 어휘생성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전들에 따르면, *away*는 전치사 *on*과 명사 *way*가 합성된 결과이다⁶⁾.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away*와 *on the way*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질만하다. 예문(3)을 보자.

- (3) a. He is away in Seoul.
b. He is on the way to Seoul.

예문(3)은 *away*와 *on the way*의 의미를 비교해보기 위한 것이다. 예문(3a)는 그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없다는 점을 말하는 반면에, 예

5) Lindstromberg. (1998: 46-7)는 기준점의 포함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away*가 기준점으로부터 이동한다는 데 있다.

6) *The Random House English Dictionary, The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 등 참고. 전치사 *on*이 a-로 약화되는 과정은 여러 어휘들(*asleep, amiss, aflame, across* 등)에서 발견된다.

문(3b)는 그가 현재 목적지인 서울로 향해 가고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away*는 현재의 위치가 기준위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반면에, *on the way*는 목적지로 이동 중에 있음을 말한다.

*away*는 기준위치로부터 분리되어 있음을 말할 뿐이지,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 *away*는 목적지 지향적이지 아니다. 이 점을 예문(4)에서 확인해보자.

- (4) a. He is away from Seoul.
 ?b. He is away to Seoul.
 c. He is away in Seoul.

예문(4a, c)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예문(4b)는 아주 어색하다.⁷⁾ 예문(4a)는 *away*가 전치사 *from*과 어울림으로써 기준지점으로부터의 분리를 표시하며, 예문(4b)는 목적지를 표시하는 전치사 *to*가 *away*와 함께 함으로써 어색한 문장을 만들었다. 예문(4c)는 전치사 *in*이 사용되어, 기준지점으로부터 이동하여 현재 머무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어 모순이 없다. 따라서 예문(4b)의 어색함은 *away*가 목적지 지향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away*는 의미자질 [-DESTINATION]를 가진다.

지금까지 논의한 *away*의 의미자질을 정리하면, 기준지점으로부터의 이동성이라는 면에서 변별자질 [+DEPARTURE]를 가지며, 목적지 지향성이 없다는 면에서 변별자질 [-DESTINATION]을 가진다. 따라서 *away*는 기본적으로 변별자질 [+DEPARTURE, -DESTINATION]으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4가지 의미 외에, 이기동(2001: 104)은 *away*의 의미에 ‘비축 및 저장’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비축이나 저장의 경우에도 기본 의미자질 [+DEPARTURE, -DESTINATION]로 설명할 수 있다. 예문(5)을 보자.

- (5) a. Please file the letters in the box.
 b. Please file away the letters in the box.

예문(5)는 *away*의 유무에 있어서 대답을 보인다. 두 문장은 편지를 상자에

7) 문장(4b)는 구어체에서 가끔씩 사용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관한다는 점에서는 결과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예문(5b)의 경우, *away*가 첨가됨으로써 편지가 놓여 있는 현재의 위치로부터 상자로 옮겨가는 부분은 의미자질 [+DEPARTURE]이 보여주며, 또한 상자는 편지가 놓이게 되는 위치일 뿐이지 편지가 의도하는 목적지가 아니라는 점은 의미자질 [-DESTINATION]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away*의 기본의미자질이 [+DEPARTURE, -DESTINATION]으로 구성됨을 보았다. 이제는 공간성과 시간성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예문(6)을 보자.

- (6) a. The shop is around the corner.
b. Christmas is around the corner.

예문(6)은 *around the corner*가 공간과 시간에 모두 사용됨을 보여준다. 문장(6a)는 *around the corner*가 공간적 상황에서, 문장(6b)는 시간적 상황에서 표현되고 있다. *around the corner*가 공간개념인 ‘모퉁이(*corner*)’를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이 표현도 공간개념에서 먼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문(6b)에서처럼 공간개념이 시간적 상황으로 확장되었다. 이처럼 공간개념과 시간개념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예문(7)을 보자.

- (7) a. He lives 1 km away from the sea.
b. He lives 30 minutes away from the sea.

예문(7a)는 공간적 상황이고, 예문(7b)는 시간적 상황이다. 예문(7a)의 공간적 거리(1km)를 예문(7b)에서 시간적 거리(30 minutes)로 환산해서 표현했다. 공간적 거리가 시간적 거리로 바뀐 것이다. 1km의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30분간의 시간적 이동을 배제할 수 없다. 즉 거리의 흐름은 곧 시간의 흐름이다. 일상생활에서도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항상 거리로만 대답하지 않는다.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때는 시간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공간성과 시간성이 서로 상통함을 보여준다.

예문(7b)의 *away*가 시간적 상황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그가 살고 있는 위치가 바다로부터 시간적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떨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은 의미자질 [+DEPARTURE]의 반영이다. 그리고 그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위치일 뿐이며 목적지는 아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위치와 현재위치의 관계일 뿐이지, 출발지와 목적지의 관계가 아니다. 이런 먼

에서 *away*의 의미자질 [-DESTINATION]은 시간개념에도 적용된다.

2.3 파생의미자질

지금까지 *away*의 변별의미자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여기서는 이러한 변별자질들이 점진성과 계속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예문(8)에서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를 생각해보자.

- (8) a. All the snow melted.
b. All the snow melted away.

예문(8a)는 눈이 녹았다는 결과만을 알려주지만, 예문(8b)는 눈이 점점 녹아 없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예문(8b)는 *away*가 눈이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점진적 과정을 말해준다. 즉 *away*는 의미자질 [+GRADUALNESS]를 갖는다. 자질 [+GRADUALNESS]는 *away*의 변별자질 [+DEPARTURE, -DESTINATION]에는 없는 새로운 자질이다.

이기동(2001: 102)은 *away*의 점진성에 대해, X *away from* Y에서 X가 한정된 양이나 수이고 소모될 수 있는 것이라면 감소의 뜻이 나온다고 말한다. 그러나 감소의 의미는 *away*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감소는 동사적 속성일 뿐이지 *away*의 속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문(8b)에서 감소성은 동사의 성질과 관련되며, *away*는 점진적 변화를 말해준다. 그리고 감소성을 가지는 동사는 모두 소멸성 동사들에 한정된다.

소멸성이란 무엇인가. 없어지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녹다(*melt*)’라는 동사는 소멸성이 있다. ‘녹다(*melt*)’는 ‘없어지다’라는 말과 결합해서, ‘녹아 없어지다’라는 연결이 가능하다. ‘타다(*burn*)’라는 동사도 ‘타서 없어지다’의 연결이 가능하며, ‘죽다(*die*)’라는 동사도 ‘죽어 없어지다’가 가능하다. 이런 종류의 동사를 소멸성동사라 하자. *away*는 이런 부류의 소멸성동사와 결합할 때에 점진성을 가짐으로써, 소멸과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묘사한다.

점진성은 순식간에 결과에 도달하는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두고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의미자질 [+GRADUALNESS]는 *away*의 변별의미자질 [+DEPARTURE, -DESTINATION]에는 없는 새로운 자질이다. 따라서 새로운 자질 [+GRADUALNESS]는 변별의미자질인 [+DEPARTURE, -DESTIN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 봐

야한다.

자질 [+GRADUALNESS]이 파생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변별의미자질 [+DEPARTURE]은 공간상에서는 기준지점으로부터의 이동을 말한다. 공간 상황이 동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 기준지점은 동작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말하며, 기준지점으로부터의 이동은 동작이 시작됨을 말한다. 공간상황에서 *away*의 의미자질 [-DESTINATION]은 목적지에 이르지 못함을 말하지만, 동작의 상황에서 이 자질은 시작된 동작이 완료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이것을 동사구 *melt away*에 적용시켜보자. 자질 [+DEPARTURE]에 의해 녹는 과정이 시작된다. 그리고 자질 [-DESTINATION]에 의해 녹는 과정이 완료되지 못하고 지속된다. [-DESTINATION]은 목적지가 없기 때문에 녹은 결과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녹기 시작한 과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away*의 두 변별자질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중간과정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녹는 과정의 시작은 자질 [+DEPARTURE]에 의해 유발되지만, 그 과정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질 [-DESTINATION] 때문이다. 자질 [-DESTINATION]는 결과에 이르는 ‘끝’이 없기 때문이다. 끝없는 과정이란 장시간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며, 장시간 지속되는 과정은 갑작스런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점진적 진행은 결과중심이 아니라 과정중심이다.

변별자질 [+DEPARTURE, -DESTINATION]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의미자질 [+GRADUALNESS]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새로운 의미자질 [+GRADUALNESS]은 파생자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예문(9)을 보자.

- (9) a. The candle burned.
b. The candle burned away.

예문(9a)는 초가 타버린 결과만을 포착하지만, 예문(9b)는 초가 타서 점진적으로 소멸되는 점진적 과정을 묘사한다. 여기서도 동사 *burn*은 소멸성 동사이며, *away*의 변별자질들이 [+GRADUALNESS]을 만들어낸다. 자질 [+DEPARTURE]에 의해 타기 시작한 과정이, 자질 [-DESTINATION] 때문에 끝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타는 과정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예문(10)도 마찬가지이다.

- (10) a. The wind died.
 b. The wind died away.

예문(10a)는 소멸의 결과를, 예문(10b)는 소멸의 점진적 과정을 보여준다. 점진적 소멸은 소멸동사에는 모두 적용된다. 감소성은 소멸동사의 소멸적 속성에 기인하며, 점진성은 변별자질 [+DEPARTURE, -DESTINATION]의 상호작용에 의해 파생된다. [+DEPARTURE]에 의해 사라지기 시작한 과정이 곧 매듭을 짓지 못하고, [-DESTINATION]에 의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away*의 변별자질 [+DEPARTURE, -DESTINATION]이 어떤 과정을 통해 계속성으로 발전하는지 관찰해보자. 예문(11)을 보자.

- (11) a. They are chatting at the back.
 b. They are chatting away at the back.

예문(11a)는 단순히 잡담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반면에, 예문(11b)는 잡담이 계속 반복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문(11a)는 현재 잡담이 진행중이라는 상황만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예문(11b)는 *away*로 인해 잡담의 반복성내지 지속성이 강조되어, 상당한 시간 동안 잡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away*는 [+CONTINUATION]이라는 자질을 갖는다. Lindstromberg (1998: 48)은 *away*의 반복성 또는 계속성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Away means 'continuation without limit' because its meaning does not include an endpoint. True, in (69)⁹⁾, a rough extent of time is named by the phrase *for hours*. However, the meaning of *away* is that within this time period, the shooters were firing not only steadily but in a fashion that was at least relatively unrestrained.

위의 인용문은 *away*는 종착점(endpoint)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점

8) *away*의 반복성과 계속성은 여기서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엄격히 말하자면 반복과 계속은 구별되지만, 동일한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9) 예문(69)는 다음과 같다: (69) They were firing away for hours. (Seth Lindstromberg, 1998: 48)

에서 *away*는 *on the way*와 구별된다. *on the way*는 목적지 지향적이지만, *away*는 그렇지 않음을 예문(1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12) *a. He is away to Seoul.
b. He is on the way to Seoul.

예문(12b)의 *on the way*는 전치사 *to*를 허용함으로써 [+DESTINATION]을 취하지만, 예문(12a)의 어색함은¹⁰⁾ *away*가 자질 [-DESTINATION]을 취함을 보여준다.

위에서 *away*의 파생자질 [+GRADUALNESS]의 도출과정을 보았다. 계속성 자질 [+CONTINUATION]도 [+DEPARTURE]와 [-DESTINATION]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행위의 계속성이란 행위가 시작되어 곧 끝남으로써 어떤 결과에 이르는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도달하기 전까지 동일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말한다. 자질 [+DEPARTURE]는 행위의 이동이며 이는 곧 행위의 시작을 말한다. 반면에 [-DESTINATION]은 동작이 완료되는 상황이 아니라, 동작이 완료되지 못하고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과정임을 말한다. 만약에 자질이 [+DESTINATION]이라면 시작된 행위가 결과에 도달하겠지만, *away*의 자질이 [-DESTINATION]이기 때문에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고 과정만이 계속 지속되며 반복된다. 따라서 변별자질 [+DEPARTURE]와 변별자질 [-DESTINATION]의 속성에 의해 새로운 파생자질 [+CONTINUATION]이 생겨나게 된다.

*away*가 공간개념에서는 거리의 이동, 시간개념에서는 시간의 이동, 점진성과 반복성에서는 동작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away*의 이동성은 기준지점으로부터의 분리이며 동시에 목적지점으로부터의 분리이기도 하다. 기준지점으로부터의 분리는 곧 자질 [+DEPARTURE]이며, 목적지점으로부터의 분리는 자질 [-DESTINATION]이다. 이러한 상황은 출발은 있으나 도착이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행위의 계속성 내지 반복성이라는 새로운 의미자질 [+CONTINUATION]을 도출하게 된다.

예문(13)을 보자.

10) 문장(12a)를 어색하다고 말한 것은 가끔 구어체에서 *away to* 형식으로 쓰일 때가 있지만 표준어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 (13) a. He is working in the garden.
 b. He is working away in the garden.

예문(13a)는 단순히 그가 정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할 뿐이다. 반면에 예문(13b)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까지 엿볼 수 있다. 이것은 [+DEPARTURE]으로 인해 일(work)의 시작은 있지만, [-DESTINATION] 때문에 일의 도착점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자질 [+GRADUALNESS]와 자질 [+CONTINUATION]은 변별 자질들로부터 파생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파생자질도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점진성과 계속성 모두 행위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다만 점진성은 소멸동사라는 특수한 동사와 결합할 때에만 나타난다는 점에서만 다르다.

3. away 동사구의 동사적 특성

away의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은 모두 자질 [+DEPARTURE]와 자질 [-DESTINATION]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두 변별자질의 상호작용을 통해 파생자질 [+GRADUALNESS]와 [+CONTINUATION]을 만들었으며, 본질적으로 이 파생자질들은 서로 다르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away의 의미자질을 통해, 동사들의 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3.1 상태동사

away는 여러 동사들과 함께 동사구를 형성한다. 그렇지만 모든 동사들이 away와 양립할 수는 없다. away와 동사구를 형성하는 동사에는 제한이 따른다. 예문(14)을 보자.

- (14) a. I think that he changed a lot.
 b. I believe that he changed a lot.
 c. I know that he changed a lot.

예문(14)의 모든 문장들은 정문이다. 여기에 등장한 동사들(think, believe, know)이 away와 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을까. 예문(15)을 보자.

- (15) *a. I think away that he changed a lot.
 *b. I believe away that he changed a lot.
 *c. I know away that he changed a lot.

예문(15)는 모두 비문이다. 예문(14)는 *away*가 없음으로 해서 정문이지만, 예문(15)은 *away*가 있음으로 해서 비문이다. 이것은 *away*가 상태동사들 (*think, believe, know*)과 동사구를 형성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상태동사들이 *away*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문(14)의 상태동사들은 동작성이 없음으로 의미자질 [-ACTIVENESS]를 가진다. *away*는 의미자질 [+DEPARTURE, -DESTINATION]을 가진다. 상태동사의 의미자질인 [-ACTIVENESS]와 *away*의 의미자질인 [+DEPARTURE, -DESTINATION]이 어떤 점에서 서로 양립할 수 없을까. 의미자질 [-ACTIVENESS]는 상태의 지속만 있을 뿐이지 동작이 없다. 따라서 의미자질 [-ACTIVENESS]는 하위자질 [-MOVE, -DO]로 구성된다. 반면에 [+DEPARTURE]은 기준위치로부터 이동하여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니, 하위자질 [+MOVE, +GO]로 이루어진다. 이들의 하위자질을 비교해보면, 자질간의 충돌을 발견할 수 있다. 의미자질 [-ACTIVENESS]의 하위자질 [-MOVE]와, 의미자질 [+DEPARTURE]의 하위자질 [+MOVE]은 서로 충돌한다.

의미자질 [-ACTIVENESS]와 의미자질 [-DESTINATION]은 어떤가. [-DESTINATION]은 아예 출발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발해서 이동하지만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자질 [-DESTINATION]는 하위자질 [+START, +MOVE, -ARRIVAL]로 이루어진다. 여기서도 자질 [-DESTINATION]의 하위자질 [+MOVE]와, 자질 [-ACTIVENESS]의 하위자질 [-MOVE]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 따라서 *away*는 상태동사와 동사구를 형성하지 못한다.

3.2 이동성 동사

위에서 *away*가 상태동사와 동사구를 형성하지 못함을 보았다. 바꿔 말하면, 의미자질 [+MOVE]를 취하는 동작동사는 *away*와 동사구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동작동사에도 여러 부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류의 동작동사가 *away*의 어떤 개념과 합치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예문(16)을 보자.

- (16) a. He moved away.
b. He walked away.

예문(16)의 *away*는 공간성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away*의 점진성 또는 계속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떤 속성이 점진성과 계속성을 배제시킬까. 예문(16)의 경우처럼, *away*의 여러 개념들 중에서 공간적 이동만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away*의 변별자질은 [+DEPARTURE, -DESTINATION]이다. 그리고 의미자질 [+DEPARTURE]은 하위자질 [+MOVE, +GO]로 구성되며, 의미자질 [-DESTINATION]은 [+START, +MOVE, -ARRIVAL]로 이루어진다. 예문(16)의 동사 *move*는 [+MOVE], 동사 *walk*는 [+MOVE, +FOOT]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동사 *move*와 *walk*의 의미자질과 *away*의 의미자질이 일치하는 부분은 [+MOVE]이다. 이처럼 *away*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하는 동사의 의미자질이 [+MOVE]일 때, *away*는 공간의미를 선택한다. [+MOVE]자질을 취하는 이동성 동사들은 모두 *away*의 공간성을 선택하게 된다.

*away*의 의미자질들 중에는 [+GRADUALNESS], [+CONTINUATION]도 있다. 하지만 이들은 변별자질은 아니며, 파생자질일 뿐이다. 동사구의 동사가 자질 [+MOVE]를 취할 때 *away*의 파생자질은 실현되지 못한다. 이것은 변별자질이 파생자질에 우선함을 말해준다. 예문(17)을 보자.

- (17) a. Just go away and leave me alone!
b. He runs away when he sees her.

예문(17)의 이동성 동사는 *go*와 *run*이다. 동사 *go*는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니 의미자질은 [+MOVE, +PLACE]이고, 동사 *run*은 발을 사용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이니, 의미자질은 [+MOVE, +QUICK, +FOOT]이다. 이들 동사들은 모두 자질 [+MOVE]을 취한다. 따라서 이들이 *away*와 동사구를 형성할 때 *away*는 공간성을 선택한다.

이동성 동사는 의미자질의 일치를 통해 *away*의 공간성을 선택하지만, 동사에 이동성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될까. 예문(18)을 보자.

- (18) a. You had better lock the valuables away.
b. She scared away her attacker by screaming.

예문(18)의 동사들(*lock, scare*)은 자질 [+MOVE]를 취하지 않는다. 동사 *lock*은 기본적으로 의미자질 [+FASTEN, +KEY]로 구성된다. 여기서 이동성은 발견할 수 없다. 동사 *scare*는 의미자질 [+FEEL, +FEAR]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도 이동성을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He locked the door*와 *It didn't scare me*라는 문장에서 동사 *lock*와 *scare*는 전혀 이동성이 없다. 하지만 동사구 *lock away*와 *scare away*는 다르다. 예문(18a)의 경우에는 귀중품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보관하며, 예문(18b)의 경우에도 폭행자를 고함을 질러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것은 동사구의 동사가 자질 [+MOVE]을 취하지 않더라도, *away*의 변별자질인 [+DEPARTURE, -DESTINATION]의 하위자질 [+MOVE] 때문에 동사구 전체에 이동성이 실현됨을 보여준다.

동사구의 동사에 자질 [+MOVE]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away*의 자질 [+MOVE]에 의해 공간적 이동이 실현되는 경우에 일정한 통사적 특징이 발견된다. 예문(19)의 문장들은 모두 이동성 동사가 아니다.

- (19) a. He hid the wedding ring away.
 b. Pack the clothes away.
 c. He frightened the dog away.
 d. She salted the money away.
 e. They washed the blood away.
 f. Keep the book away.
 g. The diamonds are shut away in a bank vault.

위의 동사들(*hide, pack, frighten, salt, wash, keep, shut*)은 자체적으로 자질 [+MOVE]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들 모두는 *away*에 의해 공간적 이동이 실현된다. 이 경우에 동사들은 모두 목적어를 취한다. 따라서 동사구의 동사가 목적어를 취할 때, *away*는 동사의 의미자질에 관계없이 공간적 이동을 취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문(19)의 *away*로부터 점진성이나 계속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점진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동사구의 동사가 소멸성 동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로부터 계속성을 어떤 방식으로 배제해야 할까. 이를 위해서 통사적 제한이 필요하다. 비이동성 동사가 *away*의 공간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휘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에서 제한을 주어야 한다. 어휘적 차원에서는 자질 [MOVE, LOSS]의 + 또는 -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¹¹⁾. 통사

적으로는 동사가 타동사 구문에 한정되므로, [V: _____, OBJECT, AWAY] 또는 [V: _____, AWAY, OBJECT]을 만족시켜야 한다.

3.3 소멸성 동사

소멸성 동사가 *away*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할 때 점차적 감소를 보인다. 점차적 감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실현되는지 알아보자. 예문(20)을 보자.

- (20) a. All the snow melted away.
 b. The music faded away.
 c. The sound of his footsteps died away.
 d. You get thinner. You're wasting away!
 e. His hat has worn away.

예문(20)의 동사들은 모두 소멸적 속성을 갖고 있다. 소멸적 속성이란 현재의 모양이나 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어 결국에는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동사 *melt*는 원래는 대상물이 모양이나 양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녹아 없어짐으로써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동사 *waste*나 *wear*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의 모습이 변형되어 없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예문(20)의 동사들(*melt*, *fade*, *die*, *waste*, *wear*)은 모두 공통적으로 의미자질 [+LOSS]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소멸동사가 *away*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할 때, *away*는 점진성을 취한다. 자질 [+LOSS]가 *away*의 자질 [+DEPARTURE, -DESTINATION]를 만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자질 [+GRADUALNESS]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점진성은 변별자질 [+DEPARTURE]와 [-DESTINATION]이 각각 공유하는 하위 자질 [+MOVE]에 의해 일단 변화를 시작하지만, [-DESTINATION]의 하위자질인 [-ARRIVAL] 때문에 시작된 변화가 빠른 시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고 장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긴다. 다시 말해서, [+MOVE]의 속성이 [-ARRIVAL] 속성 때문에, [+MOVE, +MOVE, +MOVE,...]로 연장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이 소멸동사의 자질 [+LOSS]와 만나면 감소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결국 *away*가 동사구를 형성할 때, 그 동사가 의미자질 [+LOSS]을 가지

11) 자질 [LOSS]에 대해서는 소멸성 동사에서 논의할 것이다.

면 *away*는 점진성을 선택하게 되지만, 궁극적으로 점진성과 계속성은 다르지 않다. 점진성과 계속성은 [+MOVE, +MOVE, +MOVE...]라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점진성은 소멸성 동사와 함께 한다는 점에서만 구별된다.

3.4 반복성 동사

Quirk *et al.*(1985: 1162)는 *chatter away, fire away, work away, beaver away*은 대응 동사들(*chatter, fire, work, beaver*)이 홀로 있는 경우에 비해, ‘끈기(persistent action)’이 부가됨을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전들은 이를 *away*의 ‘계속성(continuousness)’ 개념으로 소개한다¹²⁾. 예문(21)을 보자.

- (21) a. The water in the kettle was boiling away.
 b. They were working away in the room.
 c. The disease eats away at the brain.
 d. Bad debts are continuing to gnaw away at the bank's profits.
 e. They were hammering away downstairs.
 f. The same thought has been nagging away at me.
 g. She has been plugging away at her homework for hours.

예문(21)의 문장들을 보듯이, 상당한 정도의 동사들이 *away*와 함께 동사구를 형성하여 계속성 의미를 갖는다. 위에서 지적한 ‘근성’은 *away*가 있음으로 해서 동작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집요하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남을 말해준다. 동사구의 동사가 어떤 속성을 가질 때, *away*의 계속성(또는 끈기)이 실현될까.

예문(21)의 동사들(*boil, work, eat, gnaw, hammer, nag, plug*)은 이동성 동사도 아니며, 또한 소멸성 동사도 아니다. 이 동사들은 자질 [+MOVE]와 자질 [+LOSS]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공간성과 점진성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away*가 계속성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동사가 의미자질 [+MOVE]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공간성을 배제시키

12)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2001)은 *away*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용법을 소개한다: You can use *away* to emphasize a continuous or repeated action.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1995)도 비슷한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다: *adv* [not gradable] continuously or repeatedly, or busily.

기 위한 조건이다. 동시에 동사는 의미자질 [+LOSS]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away*의 점진성을 배제시키기 위함이다. 두 조건을 정리하면 동사구의 동사가 의미자질 [MOVE, LOSS]에 대해 중립적일 때 *away*는 계속성을 선택한다.

하지만 동사 중에는 자질 [MOVE, LOSS]에 대해 중립적이면서도 *away*가 공간성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앞에서 보았다. 예문(19)에 등장한 동사들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는 모두 타동사 구문에 한정된다. 이러한 상황을 배제시키기 위해 통사적 제한도 가해져야 한다. 따라서 어휘적 조건으로는 동사가 자질 [MOVE, LOSS]에 대해 중립적이면서, 동시에 통사적으로는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조건, 즉 [V:___ AWAY]이어야 한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할 때, 동사구의 *away*는 계속성을 선택한다.

4. *away-at*의 양립성

*away*가 동사와 동사구를 형성하면서 그것이 계속성을 선택할 때, *away*는 특별히 전치사 *at*과의 강한 결합력을 보인다. 예문(22)를 보자.

- (22) a. Economic anxiety eats away at people.
 b. Inflation nibbles away at people's savings.
 c. He is hammering away at the article all night.
 d. The students keep pounding away at the school.
 e. They beavered away at the building.
 f. She plugged away at the project for hours.

예문(22)는 *away*와 전치사 *at*과의 결합이 상당한 정도의 동사들에 나타남을 보여준다. 편의상 이 구문을 *away-at* 구문이라 부르자. *away*가 특별히 전치사 *at*을 취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우선 전치사 *at*에 대해 좀 살펴보자.

- (23) Sir Gawain jumped to the ground. Then both knights held up their shields and *hit at* each other with their swords. Sir Gawain was very strong. He *hit* the other knight so hard that his sword cut through the knights's helmet and into his head. Immediately, the knight fell down dead. (D. Foulds, 1994, pp. 21-2)

예문(23)에는 *hit*과 *hit at*이 각각 등장한다. 두 번째 줄에는 *hit at*이 사용되었지만, 세 번째 줄에는 *hit*만 사용되었다. 즉 *hit*와 *hit at*이 서로 달리 사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hit at*은 때리는 과정을 묘사한 반면에, 세 번째 줄의 *hit*은 때린 결과를 보여준다. 이 점은 뒤에 이어지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줄의 *hit at*은 때리는 과정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다른 상황으로 발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세 번째 줄의 *hit*은 때린 결과에 초점이 주어져, 칼이 상대방 기사의 헬멧을 뚫고 머리까지 들어가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전치사 *at*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시사해준다. 이에 대해 Quirk *et al.* (1985: 697)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A contrast in many cases (*kick at, charge at, bite at, catch at, shoot at, chew at*) may be drawn between the use of *at*, in which some idea of 'aim' is implied, and the direct object construction, which indicates attainment of the goal or consummation of the action as planned.

타동사(*kick, charge, bite, catch, shoot, chew*)가 전치사 *at*을 취하지 않는 경우는 행위의 완수, 다시 말해 행위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들 타동사가 전치사 *at*를 취하는 경우는 행위가 완성되기 위해 목표물을 겨냥하는 상황에 초점을 둔다. 전치사 *at*의 이러한 역할은 예문(24)의 문법성 차이를 유발한다.

- (24) *a. She shot him, but she missed him.
 b. She shot at him, but she missed him.

예문(24a)는 비문이다. 동사 *shoot*이 단독으로 사용되어 이미 명중되었음에도 뒤이어 ‘맞히지 못했다(*she missed him*)’라고 했으니,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문(24b)의 경우, 동사 *shoot*이 전치사 *at*를 취함으로써 명중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그린 것이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항상 명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빗나가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정문이 된다.

다시 관심사인 예문(22)로 돌아가자. 예문(22)은 *away-at* 구문이 상당한 정도의 동사들에 적용됨을 보여준다. 이런 폭넓은 분포는 *away*와 *at*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치사 *at*의 의미자질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전치사 *at*은 목표물에 대한 겨냥(*aim*)을 말한다. 겨냥한다는 것은 하나의 점(목표물)을 맞추려는 의도

이니, 전치사 *at*은 의미자질 [+POINT, +INTENTION]을 가진다. 그리고 의미자질 [+INTENTION]은 목표물에 이미 도달한 상황이 아니라 목표물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다. 전치사 *at*의 의미자질 [+INTENTION]은 이런 측면에서 *away*의 하위자질인 [+MOVE, -ARRIVAL]와 닮아 있다. 자질 [+MOVE, -ARRIVAL]은 결과에 도달하지 못하는 지속적인 과정일 뿐이며, 이것은 곧 의도와 연결된다. 따라서 *away*와 전치사 *at*의 결합은 이런 면에서 아주 자연스럽다. 예문(25)의 문장들을 비교해보자.

- (25) a. Acids eat metals.
 b. Acids eat away metals.
 c. Acids eat away at metals.

예문(25)는 모두 산이 금속을 부식시킨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하지만 금속이 부식되는 과정을 달리 묘사하고 있다. 예문(25a)는 산과 금속의 관계를 부식관계로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예문(25b)는 *away*를 첨가함으로써 부식의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보여준다. 예문(25c)는 전치사 *at*를 추가함으로써 산이 목표물인 금속을 악착같이 공략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away*와 전치사 *at*의 결합은 막연한 대상으로만 머물던 것을 공격의 초점으로 부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전치사 *at*의 자질 [+POINT, +INTENTION]과 *away*의 자질 [+MOVE, -ARRIVAL]이 서로 잘 어울림으로써 가능하다.

5. 결론

이 연구는 *away*의 공간성, 시간성, 점진성, 계속성에 대해 먼저 기본의미를 설정하고, 기본의미는 어떠한 의미자질들로 구성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away*의 점진성과 계속성이 기본의미의 의미자질들로부터 파생됨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away*는 의미자질 [+DEPARTURE, -DESTINATION]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각각 하위자질을 가진다. 자질 [+DEPARTURE]은 하위자질 [+MOVE, +GO]들로 구성되며, 자질 [-DESTINATION]은 자질 [+START, +MOVE, -ARRIVAL]들로 구성된다. 이들 가운데 자질 [+MOVE]와 자질 [-ARRIVAL]은 파생자질 [+GRADUALNESS]와 [+CONTINUATION]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사구의 동사가 자질 [+MOVE]를 취할 때, *away*의 자질 [+MOVE]와 자질일치를 통해 *away*는 공간성을 선택한다. *away*의 점진성은 소멸성 동사에 한정되며, *away*의 하위자질 [+MOVE, -ARRIVAL]에 의해 파생된다. 또한 *away*의 계속성도 동일한 과정으로 [+CONTINUATION]을 만든다. [+GRADUALNESS]와 [+CONTINUATION]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지만, 동사의 어휘적 속성과 통사적 차원에서 차이를 보인다.

away-at 구문에서 *away*가 계속성을 선택할 때, 특별히 전치사 *at*과 잘 어울린다. 그 이유는 전치사 *at*의 의미자질인 [+INTENTION]과 *away*의 의미자질 사이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이기동. (2001). *영어 전치사 연구*, 서울: 교문사.
- Biber, D., S. Johansson, G. Leech, S. Conrad, E. Finegan. (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Essex: Pearson Education Ltd.
- Foulds, D. (1994). *Tales of King Arthu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von, T. (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Lindstromberg, S. (1998). *English Prepositions Explained*.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New York: Longman Group Ltd.
- Cambridge International Dictionary of English*. (1st ed.). (199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llins Cobuild English Dictionary for Advanced Learners*. (3rd ed.). (2001) HarperCollins Publishers.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3rd ed.). (2001). Pearson Education Ltd.
- Longman Phrasal Verbs Dictionary*. (1st ed.). (2000). Pearson Education

Ltd.

The Oxford English Reference Dictionary. (2nd ed.). (1996). Oxford University Press,

The Random House College Dictionary. (2nd ed.). (1980) Random House, Inc.

권용현

152-716 서울 구로구 항동 1-1

성공회대학교 영어학과

전화: (02) 2610-4255

이메일: yhkwon@mail.skhu.ac.kr

Received: 5 Jan 2004

Revised: 17 Feb 2004

Accepted: 5 Mar 2004